

세월호 관련 112신고 녹취록(전남경찰청)

□ 첫 번째 신고 : 4. 16. 08:56:51~09:01:54 (05:03초간 통화)

경 찰 : 112경찰입니다.

신고자 : 여보세요.

경 찰 : 여보세요.

신고자 : 지금 여기 저...

경 찰 : 어디요.

신고자 : 연안여객. 세 세 세...배 침몰, 침몰 직전이라예. 침몰 직전.

경 찰 : 배가 침몰 직전이라고요.

신고자 : 예 예. 세월호, 세월호. 인천에서 제주 들어오는 거. 인천에서 제주 들어오는 거. 빨리.

(알아 들을 수 없는 외침)

신고자 : 움직이면 안 된다고.

경 찰 : 여보세요.

신고자 : 예 예 배가 침몰 된다고요.

경 찰 : 예 신고자 분.

신고자 : 예.

경 찰 : 지금 어디에서 제주 들어오는 배예요?

신고자 : 인천배. 인천에서 제주도 들어오는 거. 배가 지금 45도 기울어져 가지고...

경 찰 :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?

신고자 : 여기 학생들하고 이것저것해서 천 명 남짓 돼요. 학생들 천명.

경 찰 : 천 명이요.

신고자 : 천 명.

경 찰 : 천 명 정도 된다고요.

신고자 : 천오백 명.

경 찰 : 백 명 정도요.

신고자 : 천오백 명. 아 참, (누군가에게)몇 명, 오백 명, 총 오백 명 정도.

경 찰 : 오백 명 정도 된다고요.

신고자 : 예 예

경 찰 : 해월호라구요, 해월호.

신고자 : 세월호, 세월호.

경 찰 : 세월호요.

신고자 : 예.

경 찰 : 잠깐만 기다리세요.

신고자 : 빨리 119 헬기랑 띄우고. 빨리 하세요 이거.

경 찰 : 해경에 연락 안하셨죠.

신고자 : 해경은 지금...(알아들을 수 없음)

경 찰 : 세월호 세월호 배가 침몰한...

경 찰 : 인천에서 제주 가는 배요.

신고자 : 예...(알아들을 수 없음)

경 찰 : 지금 현재 어디쯤 왔어요?

신고자 : 추자도 사이. 제주 하고 추자도 사이. (누군가에게) 추자도 넘어 추자도 넘어.

경 찰 : 추자도 넘었어요?

신고자 : 아직까지 안 넘었대요, 아직.

경 찰 : 추자도 안 넘었다고요.

신고자 : 예 예.

경 찰 : 잠시만요.

08:58:37 목포해경 3자 통화 연결(08:58:57종료, 20초간 통화)

경 찰 : 여보세요.

해 경 : 예.

경 찰 : 112신고센터입니다.

해 경 : 예.

경 찰 : 지금 배가 침몰 직전이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...

해 경 : 아 혹시 그 세월호 말씀하시는 거예요?

경 찰 : 예.

해 경 : 아 혹시 세월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, 저희 잘 받아가지고...

경 찰 : 처리중이세요?

해 경 :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경 찰 : 예, 알겠습니다.

해 경 : 예 예.

(08:58:57, 3자 통화 종료)

경 찰 : 여보세요. 신고자 분, 너무 염려마시고 지금 해경에도 통보가 됐거든요.

신고자 : 예.

경 찰 :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?

신고자 : 지금 배가 몇도 기울었지...(알아 들을 수 없음)...30도에서 45도 기울어져 (누군가에게) 정면이 어디? 저기 정면 (여성이 대답)선수, 선수에서 좌현으로. 좌현으로 한 30도, 45도 기울어져 있고 배 안에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...

경 찰 : (남성경찰관)선수에서 좌현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.

(여성경찰관) 35도 기울어져 있다고요?

(남성경찰관) 선수.

신고자 : 60도 아니지. 45도 정도 기울...60도, 60도 정도 기울어졌어요.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.

경 찰 : 점점 기울지고 있다고요.

신고자 : 예

경 찰 : 알겠습니다. 신고자 분. 지금 해경에서 출동 중이고 조치하러 지금 가고 있으니

신고자 : 움직...(알아들을 수 없음) 기울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...(알아들을 수 없음)

경 찰 : 알겠습니다.

신고자 : 언제쯤 도착합니까? 언제쯤

경 찰 : (남성경찰관) 네,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해경에 접수됐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.

신고자 : (알아들을 수 없음)

경 찰 : (남성경찰관) 해경에서 헬기랑 바로 뜨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요. 금방 갑니다. 금방요. 접수가 되어있네요, 이미요.

신고자 : 헬기 119하고 여러 대 떠야 될 텐데.

경찰 : 네, 아니 해경에서 출발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요. 이미 접수됐으니까요.

신고자 : 예, 어느 정도 환자도 있어요.

경찰 : 환자 몇 명이나 있어요?

신고자 : 눈에 보이는 사람이 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, 두 사람 화상하고 발을...안에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.

경찰 : 피 흘리는 사람 두 명 정도 있다고요.

신고자 : (알아들을 수 없음)

(중략)

경찰 : 화상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?

신고자 : 화상환자...(알아들을 수 없음)

경찰 : 신고자 분. 전화가 자꾸 끊기니까...

신고자 : 당연히 배니까 끊기죠.

경찰 : 전화가 끊기니까 저희가 지금 목포해경에서 출동 중이니깐요.

신고자 : 아니, 목포해경이 빨라요 여기는? 제주해경이 빠르지. 추자도에 빨리 들어왔으면 제주해경이 빠르지, 목포해경이 빨라요.

경찰 : 아니 신고자 분. 그게 아니라 목포해경에 통보를 한 상태이고, 지금 거기서 출동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

신고자 : 예.

경찰 : 저희가 다시 통보할게요.

□ 두 번째 신고 : 4. 16. 09:03:09~09:05:02 (01:53초간 통화)

경 찰 : 112경찰입니다.

신고자 : 여보세요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저희 저희들 배가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서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제주도로 가는 배거든요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그게 지금 목포를 좀 지나면서 지금 바다 가운데서 기울어져 있는데 혹시 신고된 거 있어요?

경 찰 : 네. 추자도 쪽 아닌가요?

신고자 : 네. 세월호요.

경 찰 : 추자도 쪽 아니에요. 추자도 쪽은 그 쪽 신고 받고 해경이 출동하고 있는데...

신고자 : 아, 출동하고 있어요. 신고는 됐습니까?

경 찰 : 네. 지금 지금도 제가 통화하고 있어요.

신고자 : 네. 지금 네.

경 찰 : 배 이름이 뭐라고요?

신고자 : 네. 세월호요.

경 찰 : 세월호.

신고자 : 네.

경 찰 : 승선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?

신고자 : 승선인원, 여기 한 백 명...어 뭐야 구백 명 가까이...애들, 학생들 수학여행단 하고..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배가 상당히 큰 거예요.

경 찰 : 아 세인호는 몇 톤짜리인가요? 톤수가.

신고자 : 톤수는 어렵듯이 기억은...한 7, 8백 톤 이상 되는 거 같은데...

경 찰 : 인천에서 출발해서 지금 제주도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 시고요.

신고자 : 지금 위치는 파악 못했고요. 지금 막 아침을 먹고 나와서..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목포를 조금 지나 앞에 잔잔한 섬은 몇 개 보여요.

경 찰 : 네.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자도 부근 쪽에서 배 침몰, 한 쪽으로 기울었고 침몰 될 위험이 있다고.

신고자 : 네 네 네 네.

경 찰 : 해경이 출동하고 있습니다.

신고자 : 아 출동을 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신고가 됐냐고요.

경 찰 : 네, 신고는 됐습니다.

신고자 : 아,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 되네요. 올 때까지.

경 찰 : 그렇죠, 일단은. 해경이 가야 되니까, 저희는 육지 경찰이잖아요.

신고자 : 네, 그렇죠. 그래서 혹시나...전화번호를, 해양경찰 전화를 모르니까.

경 찰 : 네, 해경은 122번이에요. 122.

신고자 : 122번요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네, 알겠습니다.

경 찰 : 네.

□ 세 번째 신고 : 4. 16. 09:10:31~09:11:11 (40초간 통화)

경 찰 : 112경찰입니다.

신고자 : 아, 이거 인천 앞바다에 배 넘어가는데...

경 찰 : 네, 네. 지금 저...

신고자 : (알아들을 수 없음)

경 찰 : 신고 계속 들어오고요. 해경 통보 되서 지금 출동 중에 있습니다.

신고자 : 여기서 출동하는데 몇 분 걸리는데요?

경 찰 : 아, 그건 저희가 한 번 해경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그 신고전화가 122번이거든요, 해경이.

신고자 : 네.

경 찰 : 네. 그쪽으로 한번 전화 한 번 주십시오.

신고자 : 아이...(알아들을 수 없음)...완전히 넘어가니...

경 찰 : 저희는 통보만 해놓은 상태라...

신고자 : 네.

경 찰 : 122번으로 한 번 전화하셔 가지고요.

신고자 : 네.

□ 네 번째 신고 : 4. 16. 09:18:57~09:19:36 (39초간 통화)

경 찰 : 네, 112입니다.

신고자 : 여보세요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저희가 지금 장난전화 하는 거 아니고요.

경 찰 : 네.

신고자 : 인천항에서...

경 찰 : 아, 접수 받았습시다. 인천항에서 제주도 가는 그 배.

신고자 : 네. 여기 학생들 많은데...

경 찰 : 네 네.

신고자 : 한 사백 명에서 오백 명 되거든요.

경 찰 : 네 네 들었습니다. 저기 해경 출동하고 있습니다. 저희 접수 받았...

신고자 : 헬기 온다고요.

경 찰 : 해경이 출동하고 있습니다.

신고자 : 아, 알겠습니다.

경 찰 : 저희 접수 받았어요, 진작. 출동하고 있습니다.

신고자 : 빨리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.

경 찰 : 네.